

상상정원·아트마켓·시대의 얼굴...7차례 기획전

'공연장 옆 미술관' 광주문예회관을 전시 일정

21일~3월24일 '목가구와 달항아리' 전...김생수·조문현 등 참여
8·9월 '맛있는 나무' 10월 '온도 로드'...지역예술단체 공모전도

'공연장 옆 미술관'

광주문예회관은 지난 2016년부터 전시장도 함께 운영중이다. 대극장과 소극장 사이 공간을 재단장해 오픈한 전시실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회관을 찾는 이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해 왔다. 입소문이나 인기 높은 '11시 콘서트'나 저녁 공연 관람을 위해 회관을 찾은 이들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작품을 관람하며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렸다.

특히 지난해 처음 열린 아트마켓은 저렴한 가격에 집에 걸어둘 만한 작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으며 지역 예술단체들을 위한 공모전도 처음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아트마켓 등 모두 7차례 기획전시를 진행하며 공모전도 두차례 연다.

올해 첫 전시는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찾는 '목가구와 달항아리' 전(21일~3월24일)이다. 전시에서는 안방과 사랑방 등에 놓였던 옛 목가구를 만나며 달항아리는 도예 작품과 함께 현대미술로 재창조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김생수 작 '3층장'

조문현 작가는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에서 달항아리와 함께 산과 바다, 나뭇배 등을 함께 배치, 사유의 시간을 전달한다.

봄 기운이 가득한 3월과 4월에는 즐겁고 엉뚱한 상상 공간이 펼쳐진다. '상상정원' 전(3월28일~4월28일)이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유쾌함을 전해주는 전시로 동심, 추억, 일탈, 여행, 동물 등 다양한 소재를 매개체로 상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하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강동호·김연호·김종일·박일정·서종국&김미

인·최미연 등 7명을 초대했다. 지난해 많은 인기를 모았던 '한 집 한 그림 아트마켓' (7월12일~28일)은 여름 시즌에 찾아간다. 10만원 균일가 전시를 진행했던 지난해에는 작품작 150점 중 140점이 판매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회화, 드로잉, 서예,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장했다. 아카이브전과 판매전을 동시에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판매전만 진행, 더 많은 작품을 관람객들이 구입할 수



지나해 열린 아트마켓 전시 모습.



오관진 작 '비움과 채움'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인기 높았던 10만원 균일가전과 함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가격대도 다양화 했다.

'맛있는 나무' 전(8월22일~9월22일)은 나무라는 소재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온기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식(食)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로 목공예 작가들이 주력, 수저 도마, 그릇 등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그밖에 '온도(溫度) 로드' 전(10월4일~11월3일)에서는 광주의 달동네와 골목길, 재개발 구역 등 시민들의 삶의 흔적이 녹아있는 장소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12월에는 초상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표현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시대의 얼굴'전이 진행된다.

올해도 두 차례 공모전이 열린다. 지난해 '예맥회'와 '광주미술작가회'가 공모전을 가진 데 이어 올해는 전남대 한국화가 동문 모임인 '전통과 형상화'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예가들의 모임인 '보청사기협회'가 각각 5월과 11월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휴관일은 없으며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넷과 청년작가 공모 신진작가 6인 선정

개인전 전시공간·비용 지원

2019김넷과 청년작가 공모에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작가 6인이 선정됐다.

선정 작가는 김연호(28·회화), 문창환(28·입체), 박다운(26·회화), 박미정(25·회화), 서연호(29·회화), 황수빈(33·회화)씨로 광주와 뉴욕 등지에서 수학한 후 개인전과 기획전은 물론 광주미디아트레지던시, 청년예술인지원센터 등 각종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30대 신진작가들이다. 이번 작가 선정에는 국공립미술관 학예사, 갤러리 큐레이터, 기성 작가 등이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선정 작가들은 올 상반기부터 매월 김넷에서 전시공간과 제반 비용을 지원받아 개인전을 개최하며 김넷과 아트콘서트(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작가 이야기' 코너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박헌택 김넷과 후원회장은 선정 작가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공모전은 예술공간이 청년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속적인 청년작가 공모를 통해 작가육성,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21일 권승찬 작가 스튜디오 탐방

광주비엔날레 월례회 일환으로 매월 작가 작업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스튜디오 탐방' 2월 행사가 21일(오전 5시~7시) 열린다.

이번 탐방은 작가는 미디어아트 권승찬 작가로 작업실인 광주 무등도요를 방문한다. 권 작가는 현재 이 곳에서 '권승찬의 있다 이후-무등도요 공간의 빛'(3월1일까지)전을 열고 있기도 하다. 권 작가는 세대와 세대, 전통과 현대, 공간과 공간을 잇는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 초대전에 선정돼 미술관과 무등도요를 연결, 전시를 열기도 했다.

권 작가는 지난해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608-42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여수 예술마루 아카데미 수강생 선착순 모집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가 내달 5일 아카데미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음악, 미술, 인문학, 무용 등 총 10개의 강좌들이 마련됐다. '화요인문학'은 4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매주 화요일(5월7일 제외) 진행된다.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강의로 문을 열고 박용현 TBWA 크리에이티브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또 김현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의 지은이 손철주 미술평론가, tvN '알쓸신잡3'에 나온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양준혁 야구해설위원

등이 출연해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창용 아트스튜디오 대표의 '그림 읽어주는 남자'는 3월5~26일 4차례에 걸쳐 열리고 음악 칼럼니스트 진희숙의 '클래식 오디세이'(3월5~26일), 바리스타 임종영의 '오후의 커피' 등 기존 인기 강의는 올해도 만날 수 있다. 이외 겨울방학에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영어 뮤지컬', '키즈발레'와 '성악아카데미', 맥주-타자기 등 '원데이 클래스', '봄날의 한국무용'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마루 홈페이지(yeulmaru.org)와 대표전화(1544-7669)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퇴계와 고봉의 '서신 우정' 음악낭독극으로 만난다

26일 광산동 월봉서원

'조선, 브로맨스' 공연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우정 이야기를 음악낭독극으로 만난다.

오는 26일 오후 4시 광주시 광산동 월봉서원 강수당에서 '조선, 브로맨스' 공연이 열린다.

'조선, 브로맨스'는 약 460년 전 세대를

뛰어넘어 우정을 나눈 고봉과 퇴계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들은 26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13년 동안 120여 통의 편지를 주고 받으며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논쟁을 펼쳤다.

작품에 등장하는 고봉과 퇴계의 시들은 현대적인 언어와 극의 분위기에 맞춰 새롭게 각색했다. 집필 과정에서 월봉서원 관계자와 광산구 문화전문위원의 조언도 받았다. 이 공연은 두 학자의 서신 교류가 이뤄

진 월봉서원에서 펼쳐지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

'프롤로그'부터 '영원한 만남'까지 7장의 순서에 따라 '향기로온 만남', '대사성의 편지', '서로를 향한 마음' 등 9곡의 연주곡과 노래가 무대를 채운다.

이승규씨가 작곡과 연출을 맡고 문진영 작가가 극본을 썼다. 바리톤 권용만과 테너 장호영이 각각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



바리톤 권용만 테너 장호영

승 역할을 맡았다. 테너 여역인씨가 출연하고 연극배우 조혜수씨가 노래 사이사이 해설을 곁들인다. 무료 관람. 문의 010-3093-482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